

### “구제역 원인, 해외여행·외국인 근로자 추정”

1월 포천과 연천, 4월 강화, 김포, 충주, 청양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초 국내 유입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사람에게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봉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장(경북대 명예교수)은 지난 5월 17일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실에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분석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에 발생한 포천지역의 경우 1차 발생농장이 동북아시아출신 사람을 고용함에 따라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농장이 지난 2009년 10월 30일 입국한 동북아시아 출신 사람을 고용했고, 2009년 11월 23일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우편물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반입됐다는 것이다.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A형과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A형이 97.64%가 동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역학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다.

4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지역의 경우 소 사육농가가 동북아시아 국가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최초발생농장의 농장주가 3월 8일부터 13일까지 동북아시아 국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아무런 소독 등 방역조치 없이 바로 농가에 들어간 점과 농장주가 여행한 지역에 올해 들어 구제역 O형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유전자분석결과와 농장주가 여행한 동북아국가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와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는 99.06%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타 농장 또는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진료나 각종 모임, 축산관련 물품 및 사료 등의 운송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 농식품부 “구제역 여파 사업 재검토 필요”,

#### 낙농자조금사업 중단 통보

구제역 등으로 인해 자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낙농자조금 사업에 제동을 걸어 향후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낙농자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모든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자조금 거출률 저조 등으로 인해 낙농자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통보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주 중 체결기로 한 TV홍보 대행사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PPL 등 홍보 대행사와의 본 계약은 물론 TV광고 촬영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찾아가는 우유교실과 연구용역사업 등도 사업추진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대해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에 자조금 사업 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구제역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면 한우, 양돈자조금 역시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낙농자조금만 중단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TV광고 대행사 등을 비롯해 낙농자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설득할 명분이 없어 낙농자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육우자조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연아, 우유와 가장 어울려

우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로 피겨여왕 김연아가 선정됐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6월 1일 우유의 날을 기념에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연아는 우유하면 떠오르는

10~20대 스타 중에 36.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위로는 탤런트 유승호(9.3%), 3위는 가수 이승기(7.6%), 4위는 탤런트 신세경(5.7%), 5위는 걸그룹 소녀시대(5.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우유하면 떠오르는 30대 이상 스타로는 탤런트 최강희씨가 10.4%의 지지를 받았으며 영화배우 강동원이 10.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송혜교(9.4%), 이나영(8.1%), 이효리(6.9%)를 꼽았다.

이와 함께 우유를 가장 섹시하게 마실 것 같은 스타에는 가수 이효리가 16.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혜수(6.3%), 한재영(5.6%), 손예진(4.3%), 손담비(4.0%) 순이었다.

이와 관련 낙농자조금 관계자는 “신선한 흰우유의 이미지는 젊음과 건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유와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선정된 김연아, 이효리 등 스타들은 앞으로도 국내산 흰우유 소비촉진에 힘써 줄 것과 팬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유 급식, 초등생 줄고 중고생 늘어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우유 급식학생이 증가하면서 전체 우유급식 학생과 급식률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19일 2009년도 우유급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도 우유급식 현황은 전체 학생 747만1천명 중 51.6%인 385만4천명이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학생 재학생 수가 전년 대비 19만8천명이 줄어들어 우유급식학생수도 9만1천명이 감소했으나 중학생 10만4천명, 고등학생 7만8천명이 새롭게 우유급식을 실시해 전체 우유급식 학생수는 8만6천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우유급식률은 80.5%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31%로

5.6%, 고등학교는 21.2%로 0.6%가 각각 증가해 전체 급식률은 51.6%로 0.6%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우유급식 학교수는 전체 학교의 80.2%인 9천53개교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96%가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는 각각 67.5%, 55.6%로 전년대비 각각 5.1%, 5.7% 증가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의 급식 학생수와 급식률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개정된 학교 급식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토록 하고 있다. 지역별 우유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특광역시외의 우유급식률은 38.1%인 반면 도지역은 62.5%였으며 이는 도시지역 학생의 경우 가정배달 등 개인 구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도별로는 충남이 98.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충북, 전남, 제주가 90%를 상회했으며 경북, 경남, 경기 지역이 80% 이상의 우유급식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특광역시의 경우 40~60%대의 급식률을 보였다. 학생수로는 경기도가 182만5천4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32만7천461명, 부산이 48만8천142명, 인천 42만3천9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학교우유급식으로 소비된 원유량은 전년대비 2천톤 증가한 14만8천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국내 원유생산량 211만톤의 7%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백색식유 소비량 139만7천톤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유상급식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연간 51만2천명에게 250일간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㉞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